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9〉

明覺禪師壁間遺文(명각선사벽간유문) ①

夫傳持祖燈 嗣續佛壽 此非小任
부전지조등 사속불수 차비소임
宜景削修 肅爾威儀 尊其瞻視
의경전수 숙이위의 존기첨시
懲忿窒慾 治氣養心
징분질욕 치기양심
無以名利 動於情 無以得失 介於意
무이명리 동어정 무이득실 개어의
無隨世之上下 無逐人之是非
무수세지상하 무축인지시비
黑白 置之于胸 喜怒 不形於色
흑백 치지우흉 희노 불형어색

무릇 조사의 등불 마음으로 전해가지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것은 작은 임무가 아니니

마땅히 앞서 닦은 이를 경모해서 행주좌와 위의를 엄숙히 하고 그 존귀함을 우러러보며

분노를 막고 사욕을 눌러 심신을 다스리고 길러

명리 때문에 뜻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득실 때문에 개의함이 없게 하라.

(또한) 세상의 상·하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시비를 쫓지 않도록 하라.

흑백(시비선악)을 가슴에 묻어두고 기쁨·노여움을 얼굴·몸으로 나타내지 말라.

樂人之樂 猶己之樂 憂人之憂 若己之憂
락인지락 유기지락 우인지우 약기지우

도귀전생 무삼세지위용
人惑齮議 理固推餘 必也篤厲心誠
인혹의의 리고추여 필야독이심성
誨以規矩 博援群籍 深示妙宗
회이규구 박원군적 심시묘종
慈室忍衣 不可須臾而離
자실인의 불가수유이리
大方寶所 欲其造次必是
대방보소 욕기조차필시
動息有常 嫌疑必慎 人不可侮 天不可欺
동식유상 혐의필신 인불가모 천불가기

또 배운다고 하는것은 본래 성품을 닦음이라 어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섭섭타 할 것이며

도는 온전한 삶을 (삶 그대로를) 귀히 여기는지라 세상의 쓰임새를 베어 없애는게 아니니라

사람이 의를 사모함에 미혹하면 도리는 진실로 그밖의 것으로 밀리게 되나니 반드시 그대의 마음과 정성을 두텁게하여

법도와 본보기로 가르치며 널리 많은 책을 원용하여 오묘한 종취를 엄히 보여라.

부처님의 인의(인욕하는 마음이 갑옷 같다는 의미)를 눈깜짝 새라도 여의지 말며

부처님의 깨달음 자리에 잠깐만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자 할지니

움직이고 그침(나고 듦)에 항상 떳떳하고 의심하기를 반드시 삼가라

(망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 이에 혐의를 두지말라는 뜻도 됨)

사람이 가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하늘은 속이지 못할 것이다.

자기 단점 변호하지 말고 남의 장점 덮으려 말라

현자 받들고 욕망 이겨 본래 착한 바를 드러내라

容衆僧賢 克己復禮 無因小隙 失素所善
용중존현 극기복례 무인소극 실소소선
無背公議 棄素所疎 能不可矜 勢不可恃
무배공의 기소소소 능불가긍 세불가시
無護己短 無俺人長
무호기단 무엄인장
見德 不可忘身 存貴 不可忘賤
견덕 불가망신 존귀 불가망천

남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고 남의 근심을 제 근심같이 걱정하라.

대중을 포용하고 현자를 받들며 제 욕망을 이겨 예로 돌아가며(지키며) 작은 틈새(언행·마음씀의)로 인해 본래로 착한 바를 잃지 말라.

(또) 공론(여럿이 논의함·여론)을 등짐이 없이 본래로 멀리해야 할 바를 내어 버리며 능함을 자랑하지도 말고 세력에 기대지도 말라

자기의 단점을 변호하지도 말고 남의 장점을 덮으려 하지도 말라

덕을 보매 가히 몸을 잊어서는 안되고 귀한데서 천한 것을 잊어서도 안된다.

(도를 구한다고 하여 몸을 함부로 하거나 세간사를 하찮게 보지 말라는 뜻)

且夫學本修性 豈逼人之不知
차부학본수성 기온인지부지
道貴全生 無蔑世之爲用

사취(지옥·아귀·축생·아수라)의 인과를 두려워 하고, 삼보물을 어긋매겨 쓰는 것을 삼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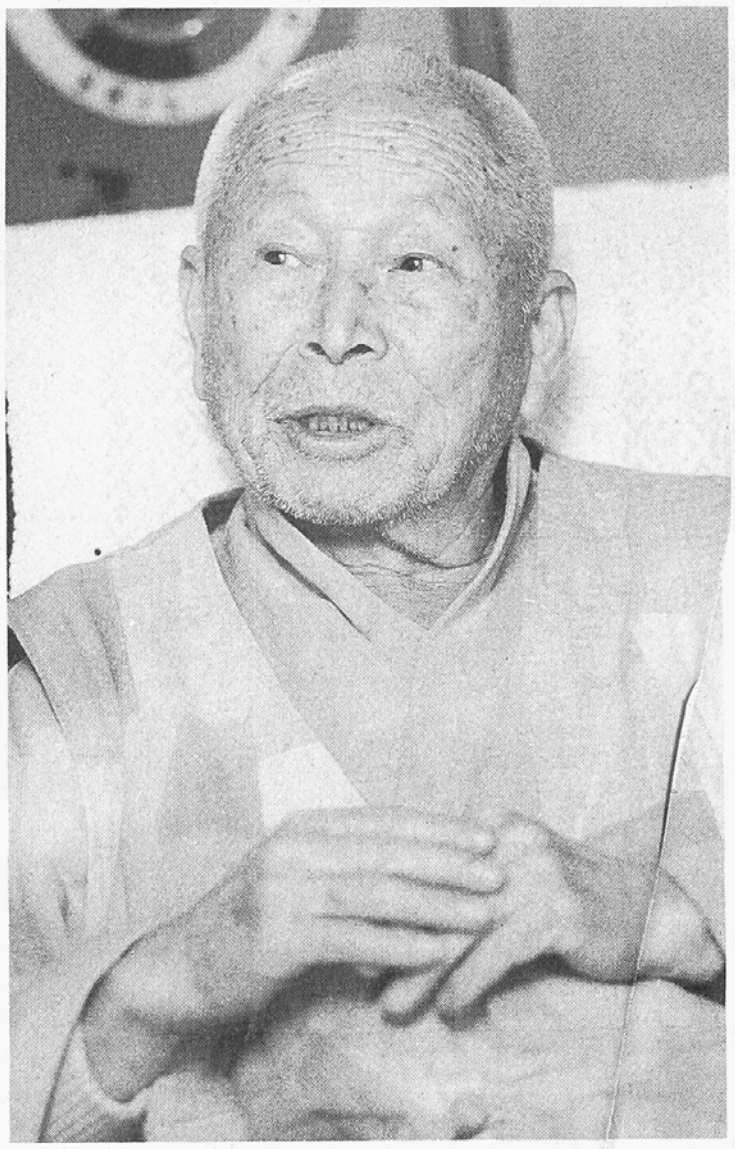
龍眼

★ 지상법석

칠보 보탑 쌓는 공덕보다

수행과 자비실천으로 일관해온 석주 큰스님이 평생닦은 마음공부를 서예작품에 담아 개인전을 19일부터 25일까지 운현궁 갤러리에서 갖는다.

불우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시회에 앞서 평소 검소와 청정생활을 실천해온 석주 큰스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석주스님 〈칠보사 조실〉

약력

- 1909년 3. 4 경북 안동 生
- 28년 남전스님 은사로 출가
- 범어사 대교과 졸업
- 78·89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 저서 〈불교근세백년〉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고요히 잠깐동안 앉아있으면 수승하기가 항하사와 같은 칠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수승하다. 보배탑은 필경에 소멸되어서 가는 티끌이 되거니와 항상 깨끗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필경에 성불한다"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앉아서 입정한 공덕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요히 앉아있는 그 공덕이 칠보를 가지고 항하사와 같은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보탑은 필경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칠보로 가지고 조성한 보탑은 시간이 지나면 그 풍화우세에 마멸이 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를 다알면 모든 방편을 초월 심력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앉아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은 꼭 성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보로 보탑을 쌓은 그 공덕보다도 잠깐 앉아있는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모두 다 고요하게 안정 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타고난 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해서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는 서로 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자리는 남에게 다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제일 나쁜자리에 내가 앉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모두 복을 받을 일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법성자리로 보아서 우리 마음에는 본래 오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허스님이라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억천겁을 지내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를 지낸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와 같다' 하셨으니 이 자리에는 본래 오고가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으로 널리 한량없는 겁을 보나니 보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세(과거·현재·미래)의 일을 요달할 것 같으면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심력을 얻는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방편법문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의 각자 마음이 다르고 기틀이 달라 그 근기에 따라 부처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산 사람들을 위해 서울은 어디로 어디로 해서 간다는 노정을 안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해 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이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팔만사천 법문이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팔만사천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라는 것은 마음의 때를 말 합니다. 번뇌를 정확히 말하면 '번요뇌란(煩擾惱亂)'이라 합니다. 흔들어서 괴롭히고 어지럽게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다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의 본 마음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번뇌를 객진번뇌라 합니다.

손 객자 티끌 진자 '번뇌', 이를테면 우리의 가정이나 하숙집 같은데 손님이 오면 며칠 묵다가 일을 다보고 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아서 객진 번뇌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다 가는것과 마찬가지로 번뇌는 언젠가는 왔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뇌만 없어지면 우리들의 본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왔다가는 것과 같고 반면에 우리들의 본 마음은 부처님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브로엄·프린스·에스페로
씨에로·르망·티코·다마스·라보

·리스 할부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 화:718-0973~4 •호출기:(015)305-3933 •담당자:이 계 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하실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신국판/404쪽/값 6,500원

관음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